

전기사고 >>> 행동요령

전기사고 사고대비, 사고발생, 응급처치 등 상황에 따른 행동요령을 제공합니다.

사고대비

- 공통
- 누전
- 합선
- 감전
- 감전(어린이)

정전 발생

- 공통 (가정에서 화재 발생 시)
- 공통 (침수, 누전, 합선 발생 시)
- 장애인

응급처치



전기사고-사고대비

공통



손이나 발에 물이 묻은 상태에서 전기제품을 다루지 마세요.

- 전기기기를 다룰 경우 반드시 물기를 닦은 후 전기제품을 취급하세요.
- 발이 물에 잠겨 있거나 손이 물에 젖었을 경우 발과 손을 먼저 말리고, 안전기 손잡이를 마른 천으로 감싸거나 손에 고무장갑을 낀 후 조심스럽게 열어주세요.



전기제품은 반드시 국가통합인증마크(KC) 또는 품질인증 마크(KS)를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전기제품 및 콘센트 주변에 먼지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세요.

- 습기나 먼지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 설치하세요.



한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아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 전기용량이 큰 제품(TV·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은 전용 콘센트를 사용하세요.

전기사고-사고대비

공통



플러그는 깊숙이 꽂으세요.

- 접촉 불량에 의해 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아주세요.

- 코드를 뽑을 때는 반드시 플러그를 잡고 뽑으세요.



플러그·전원코드를 동물이 물어뜯거나 날카로운 금속 물체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세요.



전선이 가구 등에 눌리지 않게 하세요.



노후·손상된 전선·개폐기·콘센트 등은 즉시 교체하세요.

전기사고-사고대비

공통



제품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빼 주세요.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바람이 칠 때는 끊어진 전선의 부근에 있거나 만지지 마세요.



가정 내 침수 시, 배전반의 전원스위치를 내린 다음 접근하여 물을 퍼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세요.

- 폭우로 인한 가옥침수가 예상될 경우, 먼저 누전차단기를 차단하거나 인입개폐기 또는 안전기(두꺼비집)를 열어 전기의 공급을 끊으세요.
-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가전기기 등이 물에 젖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로 옮기세요.



긴급 시 연락전화번호를 보이는 곳에 두고 전기기기의 누전, 합선 시 전기안전공사에 연락하세요.

- 전기 고장번호(국번없이 123), 전기안전공사(1588 - 7500)
- 일반주택 철대문에 연결된 개폐기 및 기타 전선이 파손되면 해당 부분을 통해 철대문 전체 누전이 발생하니 한국전기안전공사 상황실 안내에 따라 점검 또는 보수 하세요.



낙뢰 시, 높은 곳에 올라가지 마세요.

- 나무 근처에서 벗어나세요.

누전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세요.



누전 발생시 자동으로 전기가 차단되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가능한 접지하여 사용하세요.

※ 접지 :전기회로 또는 전기 장비의 한 부분을 도체를 이용하여 땅(ground)에 연결하는 것



누전 확인방법

- 가정 내 모든 전기 스위치를 끄고 가전기구 플러그를 모두 빼놓은 후, 배전반의 전력량계가 작동하고 있으면 누전이 있음.

합선



용량이 큰 전기기기의 동시 사용과 한 개의 콘센트에 문어발식 배선으로 전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노후 된 배선에서 전선이 벗겨져 합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기설비 관리에 유의하세요.



과전류 발생시 전기를 차단하는 정격용량의 퓨즈 또는 차단기를 설치하여 사용하세요.

감전



젖은 손이나 물기 있는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마세요.

전류의 크기(mA)	인체에 나타나는 현상
1	약간 짜릿한 감을 느낀다.
5	통증을 느낀다.(근육의 자제 기능)
10	자제 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다.
20	근육이 수축되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근육의 경련현상)
50	근육이 경직되고 호흡곤란(위험한 상태)
100	치명적인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른다



불량한 제품이나 고장 난 제품을 사용하지 마세요.



전기기기 및 배선 등의 충전부는 노출시키지 마세요.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감전이 된 사람을 바로 도우려 하지 마세요.

- 2차 감전의 위험이 있음.

감전(어린이)



아이들은 전기 콘센트 구멍에 젓가락과 같은 뾰족한 것으로 찔려 감전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세요.



습기나 물기가 있는 곳은 감전의 위험이 높으니 세탁실, 주방, 목욕탕 등에서는 전기 제품을 만지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하세요.



전기제품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스위치를 끄고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으세요.



전선을 잡고 당기면 플러그 연결선이 끊어질 우려가 있으니 코드를 뺄 때는 플러그 몸체를 잡고 빼도록 하세요.

공통(가정에서 화재 발생 시)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다른 사람 에게 알리세요.

-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르세요.



119에 신고하고, 화재 내용을 침착하게 설명하세요.

- 신고자 이름, 화재 장소의 주소(주소를 모를 경우 주변 의 큰 건물), 신고자 전화번호, 갇힌 사람 유무 등



가능한 경우 전기 스위치를 차단하세요.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하여, 초기소화에 힘쓰세요.



화재 발견이 늦었거나 초기 소화 작업이 곤란할 정도로 불이 번진 경우,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 물건을 챙기느라 시간을 지체하지 마세요.

공통(가정에서 화재 발생 시)



방문을 열기 전에 문을 손등으로 대어보거나 손잡이를 만져보세요.

- 손잡이가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가세요.
-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으세요.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세요.

- 화재와 동시에 대부분 전원이 차단되어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실내가 유독가스로 가득 차오니 이용하지 마세요.



대피할 수 없다면, 외부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하고 구조대원이 구해줄 때까지 기다리세요.

-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옷·이불 등으로 막으세요.(물을 적시면 더욱 좋습니다.)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는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하세요.

공통(가정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한 경우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세요.



밖으로 나온 뒤에는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옷에 불이 붙었을 때는 두 손으로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어 주세요.



연기가 많을 때 주의사항

- 연기 층 아래에는 맑은 공기층이 있으니 몸을 숙여 움직이세요.
- 연기가 많은 곳에서는 팔과 무릎으로 기어서 이동하되, 배를 바닥에 대고 가지 마세요.
- 한 손으로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공통(침수, 누전, 합선 발생 시)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바람이 칠 때는 끊어진 전선의 부근에 있거나 만지지 마세요.



가정 내 침수 시, 배전반의 전원스위치를 내린 다음 접근하여 물을 퍼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세요.

- 폭우로 인한 가옥침수가 예상될 경우, 먼저 누전차단기를 차단하거나 인입개폐기 또는 안전기(두꺼비집)를 열어 전기의 공급을 끊으세요.
-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가전기기 등이 물에 젖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로 옮기세요.



긴급 시 연락전화번호를 보이는 곳에 두고 전기기기의 누전, 합선 시 전기안전공사에 연락하세요.

- 전기 고장번호(국번없이 123), 전기안전공사(1588 - 7500)
- 일반주택 철대문에 연결된 개폐기 및 기타 전선이 파손되면 해당 부분을 통해 철대문 전체 누전이 발생하니 한국전기안전공사 상황실 안내에 따라 점검 또는 보수 하세요.

장애인



사고발생시 안전 벨을 누르고 활동보조인을 기다리거나 119에 신고해 소방공무원을 기다리세요.



사고 발생 시 움직이지 마세요.

전기사고-응급처치



감전 응급처치

- 한 번에 15분 정도 찜질하세요.
-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나, 구조차가 도착 하기 전에는 119 안내에 따라 환자를 관찰한 뒤 의식이 없거나 호흡, 심장의 정지 또는 출혈이 심한 경우 인공호흡, 심장마사지 및 지혈을 시켜 주세요.



전기사고자 인공호흡법

- 감전자의 입으로부터 오물,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편편한 바닥에 반듯하게 눕혀주세요.
- 왼손의 엄지손가락으로 입을 열고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집게 손가락으로 코를 쥐고 감전자의 입에 처치자의 입을 밀착시켜서 숨을 불어 주세요.
- 사정에 따라 손수건을 사용하되 종이 수건의 사용하지 마세요.
- 처음 4회는 신속하고 강하게 불어넣어 폐가 완전히 수축되지 않도록 하세요.
- 감전자의 흉부가 팽창된 것을 확인하고 입을 떼세요.
- 정상적인 호흡간격인 5초 간격으로(1분 12 ~ 15회) 위와 같은 동작을 반복하세요.